

설치하면 자동응답전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소비전력 14W

의 그린모드로 전환된다.  
소비자 가격은 1백 40만원

문의: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최병호(전화 589-2053/4)

## 보·도·자·료



# 한국통신, 국내 최초로 통신망 종합관리시스템 (TRUMAN) 개발

- 전국 전화국시설 및 회선관리업무 온라인 처리
- 시스템구축 완료 후, 회선개통여부와 고장신고 즉시 대처

한국통신은 전국에 있는 전화국의 시설 및 회선관리등과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간중계회선 종합관리시스템 (TRUMAN:Trunk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전화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회선접속의 신속성 등 대고객 서비스면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업무전산화에 성공했다.

TRUMAN은 지난 91년까지 5년여에 걸쳐 100여명의 연구인력과 15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통신망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전화국 업무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전국의 시내·외 국간중계회선, 전용회선, 관련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회선수요 예측 및 설비계획과 회선 현황관리 고장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미국의 전화운용회사인 Bell Atlantic사의 운용시스템(TIRKS: Trunk Inventory Records Keeping System)보다 한단계 앞선 기술이다.

또한 TRUMAN시스템은 시설운용과 시설투자에 관련된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진 자료관리시스템이다. 시설운용분야는 시설관리와 회선구성, 고장관리, 공사관리, 보전 실적관리 등의 기능 모듈로 운용되며, 시설투자분야는 회선의 수요예측에서부터 공사관리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전송설계, 설비계획, 수요예측의 기능 모듈로 운용되며, 이미 개발된 타시스템과도 연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관리시스템의 역할도 하게 된다.

향후 TRUMAN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회선현황 및 가입자

수용상황을 즉시 조회할 수 있어 전용가입 신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개통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케이블 등에 대량장애가 발생시에도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 및 주요기관 우선절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망 시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에 따라 가입자 고장신고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보·도·자·료



# 무궁화위성 상용서비스 2월 5일부터 제공

### ■ 최첨단 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개시

무궁화 1호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 서비스가 2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한국통신의 위성서비스는 직접위성방송(DBS), 고속 및 저속위성전용방송서비스, CATV 프로그램 전송, 위성이동중계(SNG), 화상회의, 도서벽지 및 비상재해통신 등으로 그간 지상망으로는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선보이게 될 신규 개발서비스로

서는 위성이동데이터, 위성고속데이터, 위성음악방송, 원격경매, 위성데이터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 사업에 앞서 운용기술축적의 일환으로 인텔셋으로부터 중계기를 임차 운용중인 서비스를 무궁화위성중계기로 전환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일부 중계기는 통신사업자 등 민간기업에 임차할 예정이다.

무궁화위성의 사용요금은 중계기당으로 볼 때 인텔셋 위성보다 10% 이상 싼 요금이며 성능이 우수하고 혼신이나 잡음이 적어 전송특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실시한 통신용 중계기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 데이터시스템 등 여러업체가 희망의사를 밝혔으며 1호위성의 부족분은 2호위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국내 최초 가상은행 시스템 개발

한국통신은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PC를 이용한 비추얼 뱅킹시스템(Virtual Banking: 가상은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3월 말부터 시험 서비스를 실시한다.

PC화면을 통해 실제 은행점포와 같은 가상점포를 고객의 눈앞에 전개시켜 은행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

행업무를 볼수 있게 하는 등 동시 시스템은 최근 전진 외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보이고 있는 최첨단 금융서비스이다.

한국통신 연구 개발원이 95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월 말에 시험가동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험서비스 제공예정인 비추얼 뱅킹

(Virtual Banking)은 예금거래 및 조회가능, 텔레마케팅 기능, 거래 및 업무지원 기능 등 현재 은행창구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